

꼭 막힌 획정위... 또 법정시한 넘기나

구·시·군 분할금지 예외 적용 놓고 찬반 팽팽

국회 제출 D-4... 선거 압박해 졸속 타결 우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10월13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진통이 계속되면서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구 숫자와 권역별 의석배분 문제, 농어촌 지역 배려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쟁점에 대한 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진통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수는 현행 246석 유지로 사실상 공감대가 이뤄져 있지만 권역별 의석 배분이 워낙 민감한 문제인데다, 현행법상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놓고 '개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어 획정위원들의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경계 조정 등 세부 획정 작업을 위해서는 적어도 닷새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획정위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을 지키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지역구 수를 확정해야 한다는 게 획정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처럼 획정위의 논의가 '공회전'하는 배경에는 획정기준을 마련해서 넘겨줘야 할 국회의 '직무유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정치권이 의원정수, 지역구-비례

대표 의석 비율, 농어촌 배려 문제 등을 놓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오는 13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국회가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시한인 다음달 13일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결국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어겨 결국 선거가 압박해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과거에도 총선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 15대 총선에 적용된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1996년 4월11일)을 약 2개월 앞둔 그해 2월6일에야 공포·시행됐으며, 16대 총선 때도 선거일(2000년 4월13일) 두 달 전쯤인 그해 2월 16일에, 17대 총선 역시 선거일(2004년 4월15일) 한 달 전인 그해 3월 12일에 겨우 획정안이 공포됐다.

18대 총선 때도 선거일(2008년 4월9일)을 한 달 남짓 앞둔 그해 2월 29일에, 19대 총선도 선거일(2012년 4월11일)을 한 달 열흘 남겨둔 그해 2월29일에 획정안이 공포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독립기구인 획정위마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은 현재의 판결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누가 나와서 선거구 획정을 하더라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대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인물

역사교과서·문광부 사전검열 대립

원만한 진행·적절한 대안 제시

박주선 무소속 의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상임위원장은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다. 여야 갈등으로 수차례 파행 위기를 맞은 국정감사를 풍부한 경험과 적절한 대안 제시로 원만하게 이끌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항의와 항우여 교육부총리의 에매모호한 답변 태도, 여당의원들의 교육부총리 거들기 등이 이어지면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고 파행으로 치달을 상황이었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으로 파행위기를 넘겼다.

이어 같은 달 1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작품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이른바 '사전검열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의원들이 편들기에 나서면서 또다시 파행 직전까지 갔지만 박 위원장이 진행의 묘를 살리면서 끝까지 파행시키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받게 했다.

지난 5일 교육부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단 이사장이 야당의원들의 표적이 됐다. 학자 시절 뉴라이트 계열 단체에 주장에 동조했던 김 이사장의 역사관에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인 포

화를 퍼부었던 것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김 이사장을 감싸주기 위한 발언을 하며 국정감사장이 험악해졌지만 박 위원장은 의원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와 끈질긴 설득을 하며 원만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같은 날 감사에서는 이배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내용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회피성 답변과 허위답변 등으로 일관하면서 또 한차례 파행의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또 끈질긴 설득과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항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재질의 하자고 대안을 제시, 파행을 막고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토록 했다.

박 위원장은 감사 진행 외에도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해내 국회의원의 감시기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조기 선대위 구성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조기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8일 KBS 라디오에 출연, “호남이나 서울이나 새정치연합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조기 선대위를 출범시켜서 총선 업무를 완전히 선대위가 이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합론이 제일 좋지만, 새정치연합을 심판하자는 천정배 의원이나 탈당한 박주선 의원 등이 과연 문

재인 대표가 있는 당으로 통합하자고 오겠는가”라며 “현실적으로 대통합론이 어렵다면 조기 선대위를 출범시켜 일단 총선에서 승리하고, 후에 대선 승리를 위한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의 ‘통합 전대 검토’ 발언과 관련, 박 전 원내대표는 “대표가 오락가락하면 오히려 당이 혼란스럽다”며 “탈당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安 “혁신위 시간 낭비·해당 행위”

오찬 간담회서 비판... “11차 혁신안 당 경쟁력 심각 훼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8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원회에 대해 “너무나 실망스럽다. 몇 달간 시간만 낭비하고 해당 행위를 했다”며 “특히 11차 혁신안이 당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11차 혁신안은 지난달 23일 혁신위가 ‘제도를 넘은 혁신’이라며 발표한 것으로, 안 전 대표 등 전직 당 대표들의 내년 총선 ‘협치 출마론’ 등 내용이 포함됐다.

안 전 대표는 “당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선거전략이 있다”며 “당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선거전략으로 물고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출마 여부는 본인 스스로 결단할 때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등 떠밀어서 할 게 아니다”며 “혁신위가 어디로 가라고 한 다음에 누가 어디로 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혁신위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 11차 혁신안은 여러모로 해당 행위의 집합”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최근 당내 부패 청산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주 초 ‘낡은 진보 청산 구상’을 발표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흥출신 송영길, 여의도 정치 재개

정책연구소 개소... “총선 출마 고민 중”

고흥출신인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8일 여의도에 정책연구소를 내고 정치활동 재개에 본격 나선다. 지난 2010년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여의도를 떠난 지 5년여 만에 돌아온 것이다.

송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먹고사는문제 연구소’ 개소식을 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거·복지·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오는 14일에는 첫 정책인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 발표회를 할 예정이다.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뒤 중국 칭화대와 대만 정치대학에서 1년간 연구교수 생활을 하고 지난 7월 귀국했다. 그는 연구소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당내 문제를 비롯한 정치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최근에는 당내 중간지대 중진급 인사들과 함께 ‘통합 행동’을 결성, 문 대표에게 통합을 위한 ‘새 정당 구상’을 발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의 이런 행보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전 시장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담보 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 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